

문화

부처님 가르침 佛音에 실어 ... 전문 포교사로 활동

음성포교 30년 성악가 이준형

“저는 늦깎이예요.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다가 불광사 합창단 지휘자 한상립 선생님을 만나 음악을 배웠고 이후 사찰합창단 지휘를 꾸준히 맡으며 불교 공연무대에 서 왔죠. 그러다가 대학원에 입학해 음악공부도 하고 지난해에는 첫 음반도 냈어요. 이렇게 정신없이 지나다 보니 불음포교를 시작하지 30여년이 되었네요. 항상 신나고 즐겁게 불음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성악가 이준형(51) 씨가 지난 12월 19일 제 2회 불교음악상 공모상을 수상했다. 30여년 불음 전파를 위해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된 것이다. 성악가 사찰지휘자 등으로 중형무진 활약해온 그의 음악 인생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현재, 삼보사, 봉원사, 청룡사, 관음회, 포교사단 등의 합창단을 지휘하고 있는 그는 늘 즐거운 마음으로 합창단원을 지도한다. “저는 연습을 한번 더 시키면 시켰지 절대 화를 내지 않아요. 사찰합창단이다 보니 저보다 연배가 많은 분들이 다수이기도 하고, 또 일부러 시간 내서 배우러 오신 분들이니 기분 좋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단원들이 웃으며 연습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조계종 전문 포교사이다 보니 노래를 가르칠 때 가사와 연관성이 있는 부처님 말씀을 곁들여 설명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공학도인 그가 이토록 불교음악에 매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어렸을 때부터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중학교 때 ‘금강에 살으리랴다’를 대중 앞에서 부르면서 큰 칭찬을 받았죠. 그때부터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여러 사정상 그 꿈을 미루고 살다가 불교음악을 만나면서 제 꿈을 꽃피우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후 불교계 지휘자와 성악가로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악가 이준형 씨는 사찰합창단 지휘는 물론 다양한 공연무대에 오르며 지난 30여년 동안 불음포교를 위해 매진해왔다.

늦깎이로 불음포교에 원력 세워 사찰 지휘자와 성악가로 활약 교리 곁들여 단원 지도에 매진 내년부터 佛음악인협회 회장도

그간 어려움도 많았다. 전공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냉대를 받기도 했고 한동안 합창단 지휘를 할 수 없어 개인사업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어려움에 굴하지 않았고 중앙대 예술대학원 음악학과에 입학해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음악가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또한 불교계 유일 오페라단인 바라오페라단 창단 멤버, 경기북부음악제의 사무국장 및 지휘자 등을 역임하면서 불교음악의 뿌리를 굳건히 해왔다.

특히 그는 경기북부음악예술제를 2005년부터 이끌어오면서 불교음악을 대중들에게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왔다.

“의정부불교음악제를 이어가려는 취지로 시작된 것이 경기북부음악제예요. 경기북부합창단이 결성되어 2005년 음악회를 시작했는데 이는 경기북부불교사찰연합회의 결성 계기가 될만큼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음악회를 통해 스님들의 연합체가 생겼으니 무척 긍정적 결과를 낳은 셈이랄 수 있어요. 경기북부음악예술제는 매년

불교적 주제의 큰 테마를 정해 메인 공연을 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불교음악을 전해주는 무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바라오페라단 활동 역시 그에게는 매우 의미가 깊다. 창단 공연 오페라 ‘아수다라와 아난다의 고백’ · ‘아미타불’, 뮤지컬 ‘오세암’ 등에 출연하면서 불교음악의 진수를 알리는데에 최선을 다해왔다. “바라오페라단은 불교계 유일의 오페라단이에요. 그만큼 의미가 있지만 그동안 공연 홍보가 잘 되지 않았어요. 내년이면 창단 10주년을 맞아 기념 공연으로 ‘아미타불’이 다시 올라갈 계획입니다. 바라오페라단이 좀더 많이 알려져 많은 분들이 불교 오페라의 즐거움을 맛보았으면 합니다.”

내년 그의 행보는 바쁘다. 2015년 1월 1일부터 한국불교음악인협회의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그는 불교음악 발전을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대중들이 쉽고 편하게 부를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불교음악이 많이 보급되어 대중들이 불교음악을 즐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회에서 신도들에게 찬불가를 지도하고 또 이를 합창단과 함께 부르며 찬불가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불교음악을 통해 힐링이 되고 부처님 말씀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정혜숙 기자



이준형 씨는 2005년부터 경기북부음악예술제를 이끌어오고 있다. 사진은 예술제서 연주지휘 모습



2013년 5월 발매한 ‘좋은 인연’ 음반 표지

백 년 좌선하면 피안에 이르나니

진감국사와 최치원

역사를 만드는 것은 사람이다. 한 사람의 뛰어난 행적이 떨치는 향기가 무궁하면 그 역사 또한 끝이 없는 것이다. 쌍계사의 무궁한 역사, 그 출발점에 진감국사와 최치원이 있다. 진감국사는 중국에서 수학하고 돌아오며 범패의식을 들여와 이 땅에 불불(奉佛) 의식의 비조가 되었다. 역시 중국에서 유학한 최치원은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학식과 문장으로 신라 사회의 우뚝한 거목이었다. 그가 남긴 많은 문장 가운데 빼어난 비문 4권을 사산비명이라 하는데, 쌍계사 진감국사 비문이 그 중 하나다. 비문의 말미, 최치원이 찬한 진감국사 비명의 앞부분은 이렇다.

두구선나(杜口禪那) 귀심불타(歸心佛陀) 귀심불타(歸心佛陀) 근속보살(根熟菩薩) 홍지미타(弘之摩他) 맹탐호굴(猛探虎窟) 원범경파(遠泛鯨波) 거전비인(去傳佛印) 래화사라(來化斯羅) 심유선승(尋幽選勝) 북축암등(卜築巖) 수월정회(水月澄懷) 운천기흥(雲泉奇興) 산역성적(山與性寂) 곡역범응(谷與梵應) 촉경무애(觸境無碍) 식기시증(息機是證)

입 다물고 선정 닦으며/ 마음으로 불타에 귀의했나니/ 근기(根機)가 성숙한 보살의 차원에서/ 도를 넓힐 뿐 다른 뜻이 없었다오/ 용감하게 호랑이 굴을 더듬고/ 고래 물결에 멀리 배를 띄워/ 가서는 의발(衣鉢)을 전수받고/ 와서는 신라를 교화했다오/ 그윽한 곳 찾아 승경을 가려/ 바위 벼랑에 더 잡고 쌓은 뒤에/ 물과 달을 보며 심회를 맑게 하고/ 구름과 샘물에 감흥을 부쳤다오/ 산은 성과 더불어 적연부동(寂然不動)하고/ 끝에는 범패(梵唄) 소리 메아리치는 가운데/ 부딪치는 경계마다 걸림이 없었나니/ 기심(機心)을 쉬는 이것이 증입(證入)이라.

시로 영그는 선비와 스님의 교류

결국 쌍계사의 역사는 진감국사와 최치원이라는 빛나는 영웅을 발판으로 시작된 것이다. 당연히, 그 역사의 흐름을 이어 후대 사람들은 쌍계사에서 그들의 업적을 찬탄했고 쌍계사 자체에 대한 경배의 마음을 잃지 않았다.

운간은약수고장(雲間隱約秀孤岑)
정대유인불염심(正對幽人不染心)
천분설화송경승(泉噴雪花松徑濕)
일홍암기석당심(日烘嵐氣石堂深)
한회화화향생전(寒灰撥火香生篆)
정야지주경발음(靜夜持珠磬發音)
연좌백년변도안(宴坐百年變道岸)
란전천계시장음(蘭千偈試長吟)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50 쌍계사 ㉔



쌍계사 돈오문 오르는 계단

구름 사이 숨었구나 빼어난 봉우리
그윽한 사람 상대하여 마음도 깨끗하네.
샘물은 하얗게 뿜어 오솔길 적시고
햇살은 아지랑이 쪼여 석담에 걸고나.
차가운 계에 불씨 찾아 향을 피우고
고요한 밤에 염주 잡으니 종도 울라네.
백 년을 좌선하면 피안에 이르나니
반딧불이는 일침 계승 길게 울조리나.

조선 중기 유학의 높은 봉우리였던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 1527~1572)의 시다. <고봉집> 제1권에 전하는 이 시의 제목은 ‘쌍계사 승려 성복에게 주다(贈雙溪僧性默)’이다. 고봉은 이 제목 아래 두 수의 시를 지었는데 그 중 두 번째 시다. 퇴계 이황과 ‘사단칠정논쟁’을 12년 동안 이어가며 자신의 학문 세계를 드높였던 당대 유학의 거봉이 쌍계사 스님과 교분이 있었다는 것부터 흥미롭다. 시도 맑고 그윽한 가운데 스님에 대한 존경과 정감이 절제 속에 드러나고 있다.

산인상방악양변(上人相訪岳陽邊)
비석선선별의견(飛錫鏗鏘別意牽)
산사중봉근오어(山寺重峰動曉語)
상종편욕도여년(相從便欲度餘年)

스님이 악양루 가로 나를 찾아왔다가
표연히 떠나갈 때 이별의 정이 아쉬웠지.
산사에서 다시 만나서 정담을 나누니
서로 사귀며 남은 여생 보내고 싶구려.

기대승 보다 100년 뒤에 태어난 이현일(李玄逸 1627~1704)도 쌍계사 스님과

교류하는 가운데 스님과 잠시 헤어지며 아쉬움을 겪고 다시 쌍계사에서 스님을 만나 반가운 마음을 이렇게 시로 승화시켰다. 이 시의 제목은 ‘쌍계사 총상인에게 주다’이며 그의 문집 <갑암집> 제1권에 수록되어 있다. ‘서로 사귀며 남은 여생 보내고 싶다’는 선비의 마음이 그윽한 산사와 넉넉한 스님 앞에서 한 무더기 묵단으로 피어나는 듯하다.

연재를 마치며

1년, 50회에 걸쳐 ‘산사에 깃든 선비의 시심’을 더듬어 보았다. 한시는 고사하고 현대시에도 맑은 눈을 갖추지 못한 채 시작하는 연재가 한 해를 이어오면서 받은 사랑은 과분하기 그지없다.

이 연재를 통해 필자는 물론 독자들도 △사찰에 전하는 시는 아주 많다는 것, △유학을 연마하는 선비들이 사찰을 수행의 공간으로는 여기지 않았더라도, 수행자들에게 더 없이 귀한 곳이 절이라는 것을 함께 인식했다는 것, △산사의 풍경과 역사 그리고 스님들의 수행이 선비들의 현실적 갈등을 적어주는데 적지 않은 감로수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뿐이겠는가? 사찰이 시 창작의 문화 공간으로 크게 활용되었다는 사실에는 눈에 보이지 않고 글에 표현되지 않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몇 가지 사실에 동의한다면, 지난 1년의 탐구가 헛된 일은 아닐 것이다.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문들이 많이 인용되었고 기타 개인의 문집과 학위논문 등 다양한 자료들이 참고되었음을 밝힌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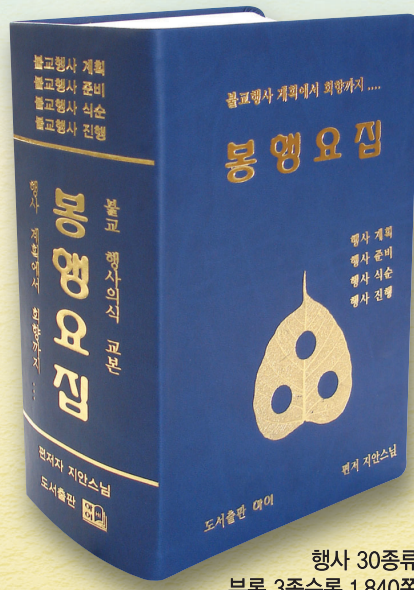
祈禱와 法供養으로 福지으세요!



봉행요집 법공양(法供養)

불교행사의 교본이 되는 봉행요집은 선반·출가·성도·열반·백중등의 명절과 수계·점안등 모든 의식 봉행에 관하여 1계획, 2준비, 3식순, 4진행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수록되어 누구라도 불교의 어떤 행사를 계획에서 회향까지 준비 진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특혜 봉행요집, 역학백과, 부적백과 3권을 구입하시면 동양역학 상담사, 동양철학교사 자격증, 승려증, 법사증을 드립니다.



불교행사의 지침서
봉행요집



불교기도의 모든 것
불교기도백과

기도에 꼭 필요한 책! 불교기도백과

서원을 꼭 이루는 기도법
기도에는 규칙과 절차가 있습니다.
규칙과 절차를 무시한 기도는
서원을 이룰수 없습니다.
여기 올바른 기도법이 있습니다

- 1.일반예참
- 2.사경기도
- 3.염불기도
- 4.절배기도
- 5.진언기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여러의 법을 전하는 복덕이
철보의 보시복덕보다 더 많다고 하셨습니다.